



FLEX 문제 풀이 전략 (FLEX Test-taking Strategies)

FLEX 듣기·읽기 시험은 총 140문항으로 평가 영역을 기초언어능력, 생활언어능력, 원어수학능력, 실무언어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기초언어능력은 필수적 문법사항, 어휘에 대해 묻는 평가영역으로 50문제가 출제된다. 그리고 생활언어능력은 시사 문제, 생활 문건 (사용설명서, 광고, 여행 안내서 등) 등에 관해 묻는 평가영역으로 46문제가 출제된다. 또 원어수학능력은 원어교재 및 문헌, 원어 강의 등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평가영역으로 22문제가 출제된다. 마지막으로 실무언어능력은 업무 협의 및 협상, 회의와 세미나 등에 대해 묻는 평가영역으로 22문제가 출제된다.

평가영역	총 문항수	듣기	읽기
기초언어능력	40	*	40
생활언어능력	56	30	26
실무언어능력	22	10	12
원어수학능력	22	10	12
계	140	50	90
총 점	1000점	400점	600점
시 간	120분	30분	90분

1. 청취문제(총 50문항) 전략

이해 영역인 듣기·읽기 시험 중 듣기 시험의 각 문항은 8점이다.

● 유형 1 (1번-10번)

반응테스트

유형1은 문장이 짧아서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배점은 긴 대화나 지문듣기와 같이 8점씩이므로 이곳에서 점수를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10개의 짧은 반응 테스트가 나오는 이 부분에서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듣기문제에서 좋은 결과를 올릴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한 문제가 한,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 단어를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앞의 7개의 문항은 한 사람이 말한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적합한 답을 고르는 질문이고 뒤의 3개의 문항은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주어지고 그 뒤에 적합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들이다.

문제의 상황이 다양하게 주어지므로 인사, 소개, 감사, 위로, 사과, 초청, 칭찬, 격려, 부탁, 거절, 허락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구어체의 표현들과 관용 표현들을 익혀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유형 2 (11번-20번) 짧은 대화문

유형2는 두 사람의 대화가 주어진다. 이 대화를 통해 짐작 할 수 있는 것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화를 들으면서 문제와 선택 문항을 미리 읽어두면 정답을 찾는 것이 수월해진다. 주로 두 사람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이나 대화자간의 갈등의 원인, 대화자들이 놓여있는 상황, 대화자 간의 관계, 대화자들이 나누는 말의 의미 등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즉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가능한 대화들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 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 질문 유형

- 女的打算做什么? ('女的'는 여성 화자를 가리킴)
- 男的意思是什么? ('男的'는 남성 화자를 가리킴)
- 老张干什么去?
- 他们可能在哪里?
- 女的做什么工作?

● 유형 3 (21번-30번) 긴 대화문

유형3은 원어수학, 실무언어 능력에 관해 묻는 영역으로 원어강의, 업무협약 및 협상에 대한 긴 대화가 주어진다.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들을 질문하는데 유형2에서와 같이 이 부분에서도 문제와 선택 문항을 미리 읽어두는 것이 정답을 고르는데 도움이 된다. 들을 때는 대화 중에서도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특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의 질문들은 이야기의 주제, 두 사람의 대화 장소,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물어보는 질문 유형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이나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질문 유형

- 根据录音内容, 我们可以知道什么?
- 录音内容可能在哪儿进行的对话?
- 男的是什么语气?
- 男的有什么样的感觉?
- 女的为什么要请男的帮忙?
- 女的对男的持什么态度?

● 유형 4 (31번-50번) 지문청취

유형4는 생활언어, 원어수학, 실무언어 모두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시사, 음성 메시지, 원어발표, 원어 발표 및 토론, 회의와 세미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유형4는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잡한 구성의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듣고 바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직청직해(直聽直解) 능력을 갖도록 연습해야 한다. 听写(듣고 받아쓰기)를 통해 연습을 하되 짧은 문장에서 긴 문장, 긴 문장에서 단락 순으로 연습을 한다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독해에서 그 글의 주제나 제목을 파악하는 것을 물어보듯이 유형4에서도 주제, 제목, 내용 등을 묻는 질문 유형들이 많이 나온다. 이 부분에서는 보통 하나의 듣기 지문당 두 개의 질문이 주어지는데 대개 내용에 대한 단서는 첫 문장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문장을 집중하여 잘 들어야 한다.

* 제목, 주제를 묻는 질문 유형

- 上文主要谈的是：
- 上面一段话主要讲的是：
- 这段话在介绍什么？

* 진위(眞僞)를 묻는 질문 유형

- 下面哪一项符合录音内容？
- 下面哪一项不符合录音内容？
- 哪个说法不正确？

* 세부 내용 파악을 묻는 질문 유형

- 促成目前首尔财政情况的主要原因是：
- 这位学者对什么进行了研究？
- 说话人认为年轻人就业是：
- 女说话人的职业是什么？
- 我曾经做过什么？
- 在什么地方常见到这种情景？
- 男说话人为什么不喜欢中国菜？

2. 읽기 (총 90문항) 전략

문제의 유형별 전략

2.1 주제를 찾는 문제

주제를 찾는 유형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지문이 이에 해당되며 주제 문장은 주로 지문 제일 앞 부분에 들어 있다. 글의 주제, 목적, 의도 등에 관한 문제의 단서는 각 문단의 첫 부분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끔 지문 중간이나 뒷부분에 주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 부분부터 읽어가면서 내용을 종합해 주제를 파악하여야 한다.

* 글의 주제를 묻는 질문 유형

- 上文主要谈的什么?
- 这类文章属于哪一种?
- 上文的主题是什么?
- 根据上文的内容, 下面哪一项是主要话题?
- 下面哪一项最合适作为上文的题目?

2.2 세부 내용 파악 문제

다양한 의문사를 이용하여 글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문제이다. 독해영역 전체 문항들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지문을 읽기 전 문제를 먼저 읽으면 필요 없는 정보는 버리고 꼭 필요한 정보만을 기억해서 질문의 핵심 부분이나 중요 의문사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정확한 독해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정보를 확실히 알고 읽으면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부 내용 파악 질문 유형

- 过去市场的价格是怎么定的?
- 中国人的名片上一般不登载什么?
- 比赛的结果是:
- 根据上文, 可以得知的信息是什么?
- 致词人的身份很可能是什么?

2.3 진위(眞僞)여부 판단문제

지문에 의거하여 보기 4개 중 옳은 것 또는 틀린 것을 골라내는 문제를 말한다. 이 유형의 문제는 각 보기와 지문의 내용을 하나씩 대조해 보면서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일단 지문을 훑어보면서 내용을 파악한 후 보기와 연관된 부분을 찾아가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정답을 고르기에 좋다.

* 질문 유형

- 下面哪一项符合录音内容?
- 下面哪一项不符合录音内容?
- 哪个说法不正确?
- 根据上文, 下面哪一项是不正确的?

2.4 편지글

편지글은 매회 출제되는 빈출 유형으로 비즈니스 편지와 개인 편지로 나눌 수 있다. 비즈니스 편지는 회사간의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다루며, 개인 편지는 친구간, 교수와 학생간, 사업주와 고객 간에 오가는 서신과 같이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나온다.

* 질문 유형

- 写信人是以什么身份写的?
- 写信人的要求是什么?
- 此类文章可以称为:
- 这种文章属于哪一类?

2.5 광고문

광고문은 크게 구인 광고, 제품 광고, 부동산 광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인 광고는 일정한 패턴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틀을 알아 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제품 광고에서는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열되므로 제품의 특징에 대한 진위(眞僞) 유형 문제와 광고 대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 부동산 광고 역시 연관된 여러 어휘들을 익혀두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 질문 유형

- 这种广告的主要对象是谁?
- 下面哪一项不符合上文内容?

- 上文是对什么商品的广告?
- 下面哪句话符合本商品的特点?

2.6 학술적 지문

FLEX는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된 시험이기 때문에 학술적 지문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학술지문의 경우 주로 세부 사항을 묻는 질문이나 진위(眞僞)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제시된 지문을 잘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질문 유형

- 心理学家的研究表明:
- 让国内整个居住的水平达到国际化的途径是什么?
- 上文的主要观点是什么?
- 根据上文, 作者认为为什么要有一流大学?
- 钱玄同为什么主张汉字要横写?

3. 말하기 (총 9문항) 전략

3.1 말하기 시험의 구성

문제 유형	준비시간	소요시간	문항 수	배점
자기소개	없음	30 초	소문항 3	20 점
낭독	30 초	50 초	1	20 점
사진·삽화 묘사	30 초	50 초	1	30 점
역할설정 (일상생활관련)	30 초	50 초	1	30 점
역할설정 (학술·실무관련)	30 초	50 초	1	30 점
데이터(도표·그래프) 분석	30 초	50 초	1	30 점
주관적 의견진술	30 초	60 초	1	30 점
주관적 의견진술	30 초	60 초	1	30 점
사회적 이슈관련 의견진술	30 초	60 초	1	30 점
합 계	240초	460초	11	250점

1) 자기소개

이 문항은 응시자들이 수험장에 와서 본격적인 말하기 시험을 보기 전 긴장을 풀고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기 위해 배치된 문항이다. 주로 자기 자신이나 가족, 친구 등에 관한 아주 간단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름, 사는 곳, 국적, 취미, 성격, 학교, 직업 등 개인적 취향을 묻거나 개인의 신상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는 문제들로 되어 있다. 10초 이내에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3문제 정도 주어지며 각 응시자가 자신의 주변 사항에 대해 대답하게 된다. 응시자들은 자신의 답을 들으면서 목소리 크기나 말하는 속도 등을 스스로 모니터 할 수 있다. 일련의 짧은 질문들이 주어지는 총 시간은 30초이며 배점은 20점이다.

2) 낭독

약 200자 정도에 달하는 중국어 지문을 30초 동안 속으로 소리 나지 않게 읽고 준비시간이 끝난 뒤 50초 동안 소리 내어 읽어야 하는 문항이다. 이 문제를 통해 발음과 유창성을 측정하게 되는데 외국어로서 중국어를 학습한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응시자들이 주로 범하게 되는 오류를 겨냥한 단어들(예: 중국어에는 없는 발음들)이 등장한다. 즉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들을 정확하게 발음할 줄 아는가, 억양의 높낮이를 올바르게 조절해서 읽을 줄 아는가, 끊어 읽는 곳을 알고 적당한 시간을 주어 읽을 줄 아는가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지문들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이 문제를 대비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연습을 하는 중에 다음의 발음에 유의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고 자신의 발음과 억양, 유창성을 녹음해서 들어보면서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사진·삽화 묘사

다양한 상황의 사진이 주어지며 그 사진 속의 상황을 묘사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문항이다. 30초의 생각할 시간과 50초의 묘사 시간이 주어진다. 응시자들이 주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묘사하게 된다.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 유형은 한 장의 사진을 제시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문제로 이 때 응시자의 개인적 추측이나 사진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추가해도 무방하다. 또 한 가지 유형은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제시하고 각각의 사진에 제시된 상황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비교문형이나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등의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다양한 상황들을 묘사하는 어휘나 어구를 연습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정해진 시간에 묘사하는 연습 또한 중요할 것이다. 이 문제는 위의 문제에서 측정하고자 했던 발음과 유창성은 물론이고 다양한 표현을 익숙하게 사용 가능 여부와 적절한 문형을 활용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문항이다.

4) 역할설정 (일상생활관련)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게 되는 상황과 과업이 주어지는데 응시자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30초의 시간 동안 준비해서 50초 동안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로 전화를 걸어 음성메세지를 남기거나, 가상의 인물에게 이야기하는 과업이 주어진다. 발음, 유창성을 비롯해 담화를 구성하는 능력은 물론 응시자들이 각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는 사회언어학적 능력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다. 즉 감사, 위로, 요청, 칭찬, 문의, 사과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흔히 쓰이는 어휘, 어구, 화용적 표현 (discourse markers) 등에 익숙하도록 준비하고 지시문에서 제시한 과업 수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5) 역할설정 (학술·실무관련)

위의 문제와 동일한 유형의 문제이며 다만 주어진 상황이 학술이나 실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학술과 관련한 상황은 대학교에서 어떻게 이수한 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장학금 신청을 하고 싶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유학생으로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험을 치르지 못해 학점을 받지 못했는데 해당 교수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과 같은 문제를 당면했을 때 주어진 지시문에 따라 가상의 인물에게 이야기 하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 실무와 관련한 상황은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갱신하고 싶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일이 생겼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회사의 신상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과 같은 문제를 당면했을 때 역시 주어진 지시문에 따라 가상의 인물과 대화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6) 데이터 분석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문항이다. 제시되는 데이터는 주로 여러 종류의 그래프 (막대그래프, 파이 그래프, 선 그래프) 나 도표가 포함되며 30초 동안 데이터를 분석하고 50초 동안 묘사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인지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나 주어진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사고력 없이는 풀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주어지는 데이터는 난도가 높지 않고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표현을 얼마나 잘 구사하는지를 측정하려는 것이므로 응시자 대부분이 준비만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특히 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표현은 정형화되어있어 이해와 암기를 통해 익숙하게 하는 게 관건이다. 예를 들어 수량의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에 능숙하게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7-8) 주관적 의견진술

이 과업은 총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준비 시간은 30초, 의견 피력 시간은 1분이 주어진다. 영역은 판단에 의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묻는다. 본인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핵심 문장을 먼저 말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이유나 예를 든다.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도록 한다.

9) 사회적 이슈관련 의견진술

이 영역은 어떠한 주제에 대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있다. 논리적으로 2개 이상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말을 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주를 이룬다. 역시 30초의 준비시간과 1분의 의견 피력시간이 주어진다. 질문들의 유형은 아래와 같고 어느 문제에도 맞고 틀린 답변은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신의 의견과 그에 따른 논리적 근거를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위의 개인적 의견 진술 문제와 같이 핵심 문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예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는 연습을 한다.

3.2 시험 전략

가. 주어진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어진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낭독의 경우 주어진 시간 내에 다 읽지 못하면 5점 감점, 나머지 유형의 문제의 경우 대답 시간이 45초 이하일 경우 10초 단위로 5점씩 감점한다.

나. 본인의 생각을 분명한 발음과 강세, 억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점자들이 응시자의 대답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어의 강세나 문장의 억양을 틀리게 말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고득점을 받으려면 반드시 명료하게 대답한다. 단어, 구,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노력한다.

다. 말하기 전에 주어지는 준비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말하기 문항 중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은 30초의 준비 시간이 주어진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말하기의 관건이다.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적을 수 있는 종지와 필기도구가 주어지므로 응시자들은 이 시간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요점과 요점을 말할 순서를 적어서 실제 말하기에 들어갔을 때 논리적인 순서로 각 요점을 말하되 누락하거나 주제와 관련 없는 다른 내용은 말하지 않도록 한다. 먼저 핵심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를 들거나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답변이 너무 장황할 경우에는 채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답은 논리적으로 하고 똑같은 말은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라. 생각한대로 표현이 잘 되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넘기는 여유도 필요하다. 각 문제의 유형과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중요 단어들 적어놓는다.

마. 보통 지나치게 긴장하는 경우 말을 심하게 더듬거나 발화속도가 빨라지는데, 보통의 발화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면대면 시험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험이므로 주어진 시간 동안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3.3 연습 전략

가. 자신의 응답을 녹음해보고 스스로 채점을 해본다. 녹음해서 들을 경우에 본인이 말 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이상한 억양이나 발음상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크고 정확하게 말하는지 스스로 점검한다. 이렇게 스스로 모니터하면서 준비하면 자신감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한국인들이 틀리기 쉬운 발음을 위주로 연습한다. 예를 들어, 'l/r 발음', 'f/p 발음', 'zh, ch, sh/z, c, s 발음', '儿化音' 등을 포함한 단어를 찾아 연습하도록 한다. 청해 연습에도 도움이 TV, 라디오, 영화 등을 자주 접해보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따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말하기의 각 문제 유형에 익숙해진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에 접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들이 도입되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예상 문제들을 만들어 연습하면서 각 문항 유형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 속어 등에 대한 연습을 미리 하도록 한다.

라. 제2외국어로 말하는 과업자체가 쉽지 않은 과제이며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한국의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중국어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가 될 때마다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중국어로 말해보자. 동료나 친구, 중국어 원어민과 중국어로 대화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한다.

마. 평가 기준

말하기 과업수행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다. 이 능력을 세분화해서 다음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각 문항을 통해 이를 측정하고자 한다.

① 담화구성능력 (Text composition)

담화에 사용된 구문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측정한다.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는 문장들로 채우고 있는지, 요점이 있는 내용을 논리에 맞게 잘 서술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② 정확성 (Accuracy)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어휘,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즉 발음, 성조, 유창성을 비롯해, 정확한 어휘(일상생활, 학술, 실무관련 다양한 어휘)와 문법(동태조사, 把자문, 피동문, 가능보어, 방향보어, 결과보어 등)을 사용해서 명료하게 답변을 하는 능력에 해당된다.

③ 적합성 (Relevance)

문제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하게 답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즉, 문제가 지시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상황에서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된 의견이나 그 의견을 지지하는 예를 제시할 때도 문제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문제와 관련이 없는 얘기는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④ 사회언어학적 대처능력 (Pragmatic competence)

언어사용을 통한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잘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언어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상황뿐 아니라 뜻하지 않게 겪게 되는 상황이나 공식 석상에서도 적절하게 잘 대처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잘 수행하는지를 측정한다. 또한 중국어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화용적 어법을 사용하는 능력도 포함된다.

4. 쓰기 (총 10문항) 전략

4.1 쓰기시험의 구성

문제 유형	문항 수	배점
단문번역	5	50점 (문항 당 10점)
내용요약	1	30 점
담화구성	1	40 점
데이터(도표·그래프) 분석	1	40 점
서신·메모 작성	1	30 점
주제별 작문	1	60 점
합 계	10	250점

1) 단문번역

다섯 개의 단문이 한국어로 주어지며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단문 번역과 제 수행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작문 능력을 측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주로 문법적인 요소와 어휘력을 보기 위한 문제들이 출제된다. 각 문장에 10점씩이며 응시자들이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문제로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2) 내용요약

약 500자 정도의 중국어 문장을 80자 이내의 중국어로 요약하는 문제로서 자신이 이해한 원문의 중요한 요점을 파악해서 요약하여야 한다. 이 과업은 원문의 이해능력이 선행되며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판단해 주어진 단어 수에 맞게 재구성하여 작문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즉 독해력, 어휘력, 문장 구성력 등이 골고루 사용되는 수행과업이다. 주어지는 원문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원문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장르의 가벼운 이야기나, 해설, 에피소드 등으로 출제자가 예측하는 소요시간은 6-7분이다. CBT나 IBT 방식에서는 자동으로 글자 수가 계산이 되고 쉽게 지우고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필 방식의 시험에서는 자신의 손 글씨가 문장의 한 행에 평균 몇 개의 글자를 쓰는지 미리 파악하여 글자 수 제한에 대비해야 한다. 답안지는 원고지 형식으로 제시되므로 평소에 원고지를 사용하여 답안 작성 훈련을 하는 것도 실전 대비에 유리하다.

3) 담화구성

결론이 제외된 200자 내외의 원문이 주어지는데 주어진 부분을 읽고 결론 부분을 50자 이내의 중국어로 완성하는 문제이다. 보통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주제가 주어지며 응시자들은 원문이 끝난 시점에서 앞의 내용과의 연장선상에서 원문을 완성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 문제 역시 앞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능력과 더불어 주어진 내용에 따라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잘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출제자의 예측 소요시간은 7분 내외이다.

4) 데이터 분석

말하기에서의 데이터 분석 문제와 매우 유사하며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이 좀 다르다. 즉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문항이다. 제시되는 데이터는 주로 여러 종류의 그래프 (막대그래프, 파이 그래프, 선 그래프)나 도표가 포함되며 출제자의 예측 소요시간은 7분 내외이다. 이 시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하고 중국어로 150자 이상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말하기 시험에서와 같이 주어지는 데이터는 난이도가 높지 않고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표현을 얼마나 잘 구사하는지를 측정하려는 것이므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특히 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표현이 정형화되어있으므로 이해와 암기를 통해 익숙하게 하는 게 관건이다.

5) 서신·메모 작성

다양한 목적으로 서신을 작성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문제이다. 구인 혹은 구직 광고, 상품에 관한 광고, 각종 지원서, 개인적 혹은 공식적 용무의 편지, 이메일 등이 포함된다.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중국어로 150자 이상의 서신이나 메모를 작성하여야 한다. 출제자의 예측 소요시간은 7분 내외이다.

6) 주제별 작문

기존 FLEX 쓰기에 있었던 문제와 같은 것으로서 주어진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중국어로 300자 이상의 에세이를 작성하는 문제이다. 시험에서 에세이 유형의 중국어 작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국어로 에세이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중국어 시험의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작문은 응시자의 실력을 제대로 반영한다. 일반적인 에세이 작성 원칙 및 방법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이 문항을 푸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제 쓰는 시간과 에세이 내용 구상에 필요한 설계 시간을 잘 할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작성하면 글의 전체적 구조에 문제가 생기거나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게 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주어진 주제를 분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포함 시켜야 할 요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적어내려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에세이를 작성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출제자가 예측하는 소요시간은 25분 정도이다.

4.2 시험 전략

가. 시간제한이 있으므로 시간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배정된 시간은 60분, 배점은 총 250점이므로 각 문항에 배당된 배점 비율을 고려해서 어떤 문제에 얼마의 시간을 쓸 지 조절해야 한다. 각 문제 당 주어진 출제자 예측소요시간은 단지 대략적인 지침이므로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좋다. 개인에 따라 각자 수행하는 과업에 대해 느끼는 체감 난이도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소요하는 시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전체 60분 중 마지막 4분-5분 정도는 마무리 작업, 즉 오자나 실수를 점검하는데 배정하는 것이 좋다.

나. 각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시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긴장함으로써 문제를 대충 읽고 글을 쓰다 보면 질문의 의도와 어긋나는 답을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간에 문제를 다시 읽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처음부터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자신의 생각을 잠시 정리하면서 요점을 정리하고 답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즉,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를 토대로 작문의 전체 윤곽을 짚는다. 요점을 작성하지 않고 글을 쓰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의 시각과 다른 방향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다시 고쳐 쓰는 것은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므로 자주 점검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 사실묘사나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서신 작성 등의 문제는 글쓰이의 판단이나 가치관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중국어로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올리는 첩경이다. 따라서 주제에 맞게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부터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종종 중국어로 생각하다 보면 중국어 표현의 한계로 인하여 생각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수험생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자신의 중국어 수준이 중국어로 사고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각의 정리는 모국어로 하고 작문의 단계에서 중국어로 옮겨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라. 각 문제는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이 표시되어 있다. 글자 수를 초과하거나 채우지 못하면 감점 대상이 되므로 이 제한을 엄수하도록 한다.

마. 마지막으로 평소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정리하는 습관을 갖고 그에 알맞은 중국어 표현을 익혀 둔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에세이는 60점으로 배점도 제일 높고 소요되는 시간도 길다. 작문은 단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오랜 기간의 준비와 수련이 필요하지만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습한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별 작문의 구조

에세이 시험을 치를 때와 평소에 에세이 작성을 연습할 때, 에세이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국내외 문헌에서 지적했듯이 에세이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과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 서론 (Introduction)

에세이의 서론에서 전체적인 전개 방향이 결정되므로 문제의 중심 주제를 정확하게 선언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글을 전개한다. 이 부분에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론 (Main Body)

본격적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2개에서 3개 정도의 단락으로 구성하여 서론에서 제시한 주제를 지지한다. 각 단락에서는 논지를 지지하는 논거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전체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로서 직접경험이나 간접경험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제시된 예들이 모두 적절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락을 마무리할 때에는 각 단락에서 다루었던 소주제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미 사용한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는 비슷한 어구나 단어들을 이용하여 다시 한 번 진술하는 것이 좋다. 물론 기존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본론을 구성하는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은 핵심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해당 단락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서 핵심 문장을 지지하는 예를 들고 마무리한다. 이런 방식으로 2개에서 3개 정도의 단락을 구성한다. 물론 허락되는 시간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요점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제한된 시간에 일반 응시자들에게 기대하는 본론의 단락은 2개에서 3개 정도이다.

- 결론 (Conclusion)

글 전체에 대한 요약부분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유사단어나 표현들을 사용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해주고 본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한다. 즉, 글쓴이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효과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문단을 간명하게 구성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에세이 구조는 서술형의 에세이뿐만 아니라, 길이가 비교적 짧은 찬반형이나 선택형의 의견 진술 문항에도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찬반형의 경우에는 응시자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명시하며 글이 시작되고, 선택형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명시하며 시작된다. 이렇게 전체 주제문장으로 시작하여 의견을 본격적으로 개진하면서 구체적인 이유와 사례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은 본론의 논지 전개 과정과 상응된다. 결론 부분은 자유 에세이의 결론 부분과 거의 유사하다.

에세이 작성 훈련을 하는 것은 단순히 쓰는 능력만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해 부분의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게 구성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언어능력은 어느 한 영역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역의 능력 향상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언어능력이 단기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을 두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관건이다.